

국가 멸망을 해원(解冤)의 관점에서 조명하기

- 백제 · 고구려 · 신라 · 후백제의 멸망을 중심으로 -

차선근*

■ 국문요약

이 글은 백제 · 고구려 · 신라 · 후백제의 멸망 과정을 해원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가 정치 · 군사 · 외교 ·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인 원한을 풀기 위해 벌이는 복수 역시 그 원인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통함을 복수로써 푸는 행위가 국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이것을 접하는 독자들은 인류 역사에 보편적이었던 탈리오법칙에 기대어 역사 전개 of 필연성을 납득받게 된다. 폭력을 행사하여 원통함을 푸는 해원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해원의 본질이 상대(또는 자신)를 향한 폭력이라는 사실은 국가 멸망이라는 역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그렇다면 근대 한국에서 출현한 많은 증산계 교단들이 ‘해원’을 자기들의 핵심 교의(教義)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은 짚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교단들이 내세우는 해원은 복수의 폭력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해원은 폭력을 동반하는 무서운 행위다. 그

* 대전대학교 조교수, E-mail: chasungun@hanmail.net

러므로 이 교단들은, 자신들의 해원이 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세간의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원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대순진리회가 거의 유일하다. 이 교단은 창립 초기부터 ‘해원’이 아닌 ‘해원상생’을 종교용어로 삼아 교의에 적시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해원이 폭력적이지 않고 상생을 지향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해원의 본질이 폭력임을 고려할 때, 해원 대신 해원상생을 선택한 대순진리회의 표기법은 다른 증산계 교단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국가 멸망, 탈리오법칙, 해원, 복수, 해원상생

- I. 여는 글
- II. 해원과 백제 멸망
- III. 해원과 고구려 멸망 설화
- IV. 해원과 신라·후백제 멸망
- V. 닫는 글

I. 여는 글

해원(解冤=雪冤=伸冤)은 원(冤)을 푼다는 뜻이다. 대개 그 방법은 복수·양갚음이니, 만약 누군가가 해원의 뜻을 세운다면 거친 방법이 동반되기 일쑤다.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려준다는 이런 해원 방식은 인간 역사와 함께 해왔다.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탈리 오법칙(lex talionis, 同害報復法)이나 동아시아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은 그 사례들이다.¹⁾ 중국의 고대사는 아예 복수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복수 이야기가 많다. 일본의 역사에도 수많은 복수가 등장한다. 주군을 위해 죽은 47명의 로닌(浪人) 이야기는 ‘추신구라(忠臣藏)’라는 인형극과 가부키로도 제작되어 일본의 국민 서사시로까지 불릴 정도다.²⁾

해원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게 아니다. 무섭고 두려우며 처절하다. 만약 죽은 자가 해원하고자 나선다면 그 해원으로 인해 인간들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두려움은 사회

1) 김창석, 「한국 고대의 복수관(復讐觀)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8 (2013), pp.147-148.

2) 차선근, 「강증산의 해원상생과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지향점」, 『대순종학』 3 (2022), pp.54-57.

공동체에 전과되어 더 증폭된다. 동아시아에서 원혼을 위무하는 풍습이 발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해원이 일으키는 폭력과 재앙은 인간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를 넘어 국가 단위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춘추전국시대 오나라 부차가 원통함을 다졌던 와신(臥薪)의 결과는 월나라 공격으로 나타났고, 월나라 구천이 상담(嘗膽)하며 복수를 잊지 않았던 결과는 오나라 멸망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백제·고구려·신라·후백제 멸망이 그 가운데 하나다. 복수를 통해 원통함을 푸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이 국가들을 멸망으로 이끈 것은 물론 아니다. 백제·고구려의 멸망 원인은 왕의 무능·지배층 분열·주변 국가와의 갈등 조정 및 연합 실패·잦은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진·강력한 적국의 침입,³⁾ 신라의 멸망 원인은 정치적 혼란·경제 파탄·중앙과 지방 세력(호족·농민)의 충돌,⁴⁾ 후백제 멸망의 원인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 및 군사력 약화 등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사료를 검토하면 이 나라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여정 속에, 원통함을 풀려고 복수를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관찰된다. 조금 부풀리자면, 이 나라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 직접적 동력원이 원한 감정과 해원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 글은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백제·고구려·신라·후백제가 멸망의 길로 가는 동안 해원의 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원의 본질은 상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원이라고 하는 행위는 ‘상생’을 덧붙이지 않으면 인간과 사회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것이다.

3) 백제 멸망 원인으로 지목된 외교력 부재나 국내 정치 파행은 사료와 달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희진, 「백제-신라 전쟁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백제 멸망원인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pp.304-332.

4) 신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pp.166-168.

II. 해원과 백제 멸망

1. 백제의 원한과 88년 설육전

백제의 멸망에 해원 요소가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은 6세기 중엽부터다.⁵⁾ 5세기에 고구려는 대륙 진출 대신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한반도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백제는 433년에 신라와 동맹을 맺고[羅濟同盟, 濟羅同盟]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성왕(聖王, 504~554) 치세 시기인 551년이 되면 백제는 신라와 함께 진격하여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를 장악했다.

그런데 553년 7월에 신라는 한강 하류까지 그 지배 영역을 넓혀버렸다.⁶⁾ 사태를 관망하던 성왕은 그해 10월에 자기의 딸을 신라 왕에게 소비(小妃)로 시집 보내는 유화책을 펴는 듯 보였다.⁷⁾ 하지만 다음 해인 554년 10월, 대가야와 왜의 지원병까지 받아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였다. 성왕은 초기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처음에는 전세를 유리하게 가져갔으나 곧 신라의 반격에 직면했고, 관산성(지금의 옥천)에서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밤에 은밀히 이동하다가 신라의 매복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만다.

32년(554년) 가을 7월에 왕[聖王]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 충남 옥천 부근)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포악한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⁸⁾

5) 차선근, 「한국 종교의 해원사상 연구: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1), p.59.

6)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성왕 31년 7월. 이후의 『三國史記』 해석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를 인용하였음. “31년(553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 경기 하남과 광주 일대)를 설치하였다.”

7)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성왕 31년 10월.

주목되는 것은 이 사건을 상세하게 적은 『일본서기』의 기록이다.

여창(餘昌: 성왕의 아들, 태자)이 ... 드디어 신라에 들어가 구타모라(久陀牟羅: 옥천군 군서면)에 성책을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明王: 성왕)은 여창이 계속된 전쟁에 오랫동안 쉬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 그래서 몸소 가서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명왕이 친히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징발하여 길을 차단하고 격파하였다.

또한 이때 신라에서는 좌지촌(佐知村: 충북 보은)의 사마노(飼馬奴) 고도(苦都)에게 “고도는 친한 놈이다. 명왕은 유명한 군주다. 이제 비천한 노비에게 유명한 군주를 죽이게 하자.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명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건네줄 수 없다.” 하며 버텼다. 고도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약[나제동맹]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했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까지 사무쳤다. 돌이켜 헤아려 보아도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내밀어 베도록 하였다. 고도는 목을 베어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어떤 책(一本)에는 “신라는 명왕의 두골을 남겨 매장하고 나머지 뼈는 예를 갖춰 백제에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명왕의 뼈를 북청(北廳) 계단 아래 묻었다. 이름하여 그 관청을 도당(都堂)이라 한다.”라고 한다].⁹⁾

이에 의하면 신라는 성왕의 죽임에 두 가지 모욕을 가했다. 그것은 비천한 노비에게 군주의 목을 베게 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만들어 성왕의 이름을 대대로 더럽힘, 그리고 성왕을 죽인 후 그의 시신을 백제로 돌려보내되 그의 두골(頭骨)만큼은 신라 관청

8)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성왕 32년 7월.

9) 『日本書紀』 卷第十九, 「欽明紀」, 흠명천황 15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북아역사넷 사이트의 번역을 인용함. 《동북아역사넷》, 「일본서기」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ns.k_0032_0160_0050_0020, 2023. 11. 30. 검색).

〔北廳〕의 계단 아래 문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짓밟히게 함이었다. 관청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 계단 아래는 내려오는 발걸음이 내딛는 충격이 중력의 도움으로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적국 왕의 머리를 묻고 콕콕 밟도록 만든다는 것은 백제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나름의 주술적 장치였을 것이다.¹⁰⁾ 노비에게 죽임을 당한 왕의 시신을 머리 없는 채로 돌려받고 왕의 머리는 계속 짓밟힘을 보아야 하는 백제는 그 심정이 편할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서기』의 이 기록에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책[一本]’이라고만 함으로써 명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물론 가능하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백제가 성왕의 복수를 위해 신라를 침공하여 대야성의 성주와 그 부인을 죽인 후 그들의 유골을 감옥 안에 묻어 죄수들에게 짓밟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성왕의 두골이 짓밟혔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백제 멸망 60년 후인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의 이 기록이 백제 유민의 구전 이야기와 심정을 담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면, 백제는 성왕의 죽음에 대해 신라로부터 큰 모욕을 느꼈던 만큼은 사실일 것 같다.

백제는 영토를 빼앗기고, 왕도 전사하며, 굴욕도 맛보았다. 큰 원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파기되었으며, 백제는 해원 즉 원한을 풀기 위한 치절한 설욕전에 돌입했다. 죽은 성왕의 맏아들 위덕왕이 그 시작이었다. 위덕왕은 부친의 복수를 위해 전열을 정비한 후 561년 신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1,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대패하고 만다.¹¹⁾ 16년 동안 국력을 꾸준히 모은 끝에 577년 다시 신라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3,700명의 목이 베이고 대패했다.¹²⁾

연이은 패전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진 백제는 와신상담에 들어갔고, 무

10) 김창식,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大耶城)」, 『신라문화』 34 (2009), pp.79-80.

11)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第五」, 위덕왕 8년 7월.

12)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第五」, 위덕왕 24년 10월;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第四」, 진지왕 2년 7월.

왕(武王, 580~641) 치세에 이르러서야 신라에 대한 복수 전쟁을 재개할 수 있었다. 무왕은 즉위 3년째인 602년부터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2차례(605년, 611년, 616년, 618년, 623년, 624년, 626년, 627년, 628년, 632년, 633년, 636년)나 신라와 공방을 벌였다.¹³⁾

백제의 결정적 복수는 무왕의 아들 의자왕(義慈王, 599~660) 때 이루어졌다. 의자왕은 즉위한 그다음 해인 642년 7월, 곧바로 신라를 침공하여 40여 성을 함락했다.¹⁴⁾ 그리고 8월에 군사 1만 명을 보내 신라의 전략 요충지 대야성(大耶城: 경남 함천)을 침공하여 항복한 성주 김품석(金品釋)과 그 처자(妻子)를 모두 살해했다.

(642년) 8월에 장군 윤충(允忠)을 시켜 10,000명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다. 성주 김품석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왕도로 보냈다. 신라인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백제 서쪽 지방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¹⁵⁾

이때 죽은 인물들이 중요하다. 살해당한 김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古陀炤)는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었고, 고타소는 김유신의 생질녀(甥姪女)이기도 했다.¹⁶⁾ 백제는 대야성이 신라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 그리고 진골 출신의 고관대작이자 김춘추의 딸(동시에 김유신 여동생의 딸)과 사위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김품석과 고타소의 두골을 백제 왕궁 사비성으로 보내 죄수들이 거처하는 감옥 바닥에 묻어버렸다[埋之獄中].¹⁷⁾ 죄수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도록 만들었으므로, 신라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백제 성왕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백제는 맺혔던 88년 전의 원한을 조금은 풀게 되었다.¹⁸⁾

13)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第五」, 무왕 3년~37년.

14) 『三國史記』 卷第二十八, 「百濟本紀第六」, 의자왕 2년 7월.

15) 『三國史記』 卷第二十八, 「百濟本紀第六」, 의자왕 2년 8월.

16) 김창석,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大耶城)」, pp.89-90.

17)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第五」, 태종무열왕 7년 7월 13일.

18) 김창석,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大耶城)」, pp.93-94.

2. 딸을 잃은 김춘추의 원통함과 복수

졸지에 딸과 사위, 외손주들을 한꺼번에 잃은 김춘추는 절망했다. 『삼국사기』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대야성이 함락되었을 때 도둑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김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이 소식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박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이윽고 말하기를, “아!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라고 하고는 곧 선덕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¹⁹⁾

김춘추는 이를 갈며 백제를 반드시 멸망시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한다. 해원, 즉 원한을 갚는 복수는 신라의 차례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춘추는 김유신과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며 맹세한 후,²⁰⁾ 고구려로 들어가 구원병을 청하였다. 하지만 김춘추는 고구려로부터 구원병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로부터 6년 뒤인 648년, 김유신은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대야성을 공격하여 매복 작전으로 백제 장수 8명을 생포했다. 이때 김유신은 백제와 거래하여 이 포로들을 백제 왕궁 감옥 안에 묻혀 죄수들에게 짓밟히고 있던 김품석과 고타소의 유해와 맞교환하는 데 성공했다.

(김유신이) 사람을 시켜 백제 장군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유해가 너희 나라 감옥에 묻혀있고, 지금 너희 비장 8명이 나에게 잡혀 영금영금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도 죽을 때에는 자기가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말을 생각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은 두 사람의 유해를 보

19)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第五」, 선덕왕 11년.

20)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第一」, ‘金庾信, 上’.

내 살아 있는 8명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였다. …이
에 (신라는) 품석 부부의 유해를 파내 관에 넣어 보냈다.²¹⁾

두 사람의 유해는 물려받았으나,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그 복수를
완성하고자 하는 김춘추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결국 김춘추는 당나
라와 동맹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야 말았는데, 당시 김춘추의 아들 김
법민은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에게 그 원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하고 있다.

(660년 7월) 13일에 의자왕이 좌우의 측근을 거느리고 밤을
틈타 도망쳐 달이나 웅진성(熊津城: 충남 공주)에 몸을 보전하
고,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 대좌평 천복 등과 함께 항복하였
다. 김법민이 부여융을 말 앞에 꿇어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어 말하기를, “예전에 너의 아버지(의자왕)가 나의 여동생(妹,
고타소)을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그 일로 나
는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았다. 이제 오늘 너의 목
숨은 내 손안에 있구나!”라고 하였다. 융은 땅에 엎드려서 말이
없었다.²²⁾

지금까지 언급한 성왕의 죽음이 만든 백제의 원한과 복수, 김품석
과 그 부인의 죽음이 만든 신라의 원한과 복수는 백제를 멸망으로 가
게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3. 검일과 김유신의 해원

이 외에도 백제 멸망에는 숨겨진 해원들이 더 있다. 그것은 첫째,
검일(黔日)의 해원이다. 642년 8월, 신라에 복수하고자 백제의 윤춘이
대야성을 공격할 무렵, 대야성을 지키던 성주 김품석은 자기의 부하인
검일의 아내를 빼앗는 비행을 저질렀다. 이에 앙심을 품은 검일은 원

21)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第一」, ‘金庾信, 上’.

22)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第五」, 태종무열왕 7년 7월 13일.

한을 풀기 위해 대야성을 신라에 넘겨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²³⁾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둑 품석은 막객(幕客)인 사지(舍知)²⁴⁾ 검일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녀를 빼앗았다. 검일은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때 이르러 (검일이 백제군과) 내통하여 창고에 불을 질렀다. 그러므로 성안에서는 두려워 그 공포로 성을 지킬 수 없었다.²⁵⁾

침공한 백제군의 기세가 드높았다고 하더라도,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난공불락 요새인 대야성을 방어하는 신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다. 만약 김품석이 검일의 원한을 만들지 않았다면 백제와의 내통도, 식량과 군수물자 창고가 불태워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전투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일의 복수는 대야성을 너무나 쉽게 백제군에게 내어주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백제 성왕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갚는 동시에 신라에 큰 원한을 심어주는 일이 되었다.

검일의 말로는 좋지 못했다. 아내를 빼앗긴 분함을 갚고자 대야성이 적국 백제에 함락되도록 만들고 백제로 귀순하여 살았으나, 훗날 그는 백제가 신라에 패배하자 사로잡혀 사지를 찢기고 강에 버려지게 된다.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검일을 잡아서 말하기를, “네가 대야성에서 모척과 모의하여 백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 창고에 불을 질러서 없앴기 때문에 온 성안에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싸움에 지도록 하였으니 그 죄가 첫 번째이다. 김품석 부부를 억박질러서 죽였으니 그 죄가 두 번째다. 백제와 더불어서 본국을 공격하였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다.”라고 하였다. 이에 사지를 찢어서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²⁶⁾

23) 김창석,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大耶城)」, pp.91-93.

24) 신라에는 17관등제가 있었다. 진골은 1~5등, 6두품은 6~9등, 5두품은 10~11등, 4두품은 12~17등의 관직을 맡았다. ‘사지(舍知)’는 13등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급 벼슬이다.

25) 『三國史記』 卷第四十七, 「列傳第七」, ‘竹竹’.

26)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第五」, 태종무열왕 7년 8월 2일.

둘째, 김유신의 해원이다. 전술했듯이 김유신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김춘추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사 기록 『삼국사기』에 의하면, 원래 그는 17세 시절에 고구려·말갈과 백제가 신라를 침입하여 괴롭히는 원한을 갚고자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빌었던 인물이라고 전해진다.

진평왕 28년(611년)에 (김유신) 공의 나이는 17세였다. 고구려·백제·말갈이 나라의 강역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침입하는 외적을 평정할 뜻을 품었다. 홀로 중악(中嶽)의 석굴에 들어가 재계하고 하늘에 맹서하기를, “적국(敵國)이 무도(無道)하여 승냥이와 범처럼 우리의 강역을 어지럽혀 평안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낱 보잘 것 없는 한미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재앙과 난리를 없애고자 하는 뜻을 품었사오니, 하늘께서 굽어살피시어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머문 지 4일이 지나 홀연히 한 노인이 거친 베옷을 입고 나타나 말하기를, “여기는 독충과 맹수가 득실거리는 무서운 곳이다. 귀한 소년이 여기에 와서 혼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르신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존함을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고 인연에 따라가고 머물며 이름은 난승(難勝)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두 번 절하고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머리에 근심이 가득 차서 일부러 이곳으로 와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어르신께서 저의 정성을 가엽게 여기셔서 방술(方術)을 가르쳐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노인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고 예닐곱 번이나 하였다. 노인이 그제야 이르기를, “그대는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삼국을 병합할 마음을 품었으니(有并三國之心), 또한 장하다 하지 않으랴.”라고 하고, 이윽고 비법을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삼가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약 의롭지 않은 일에 쓴다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작별하였는데, 2리 정도 갔을 때 쫓아가 보았으나 보이지 않고, 오직 산 위에 오색 찬란한 빛만이 비출 뿐이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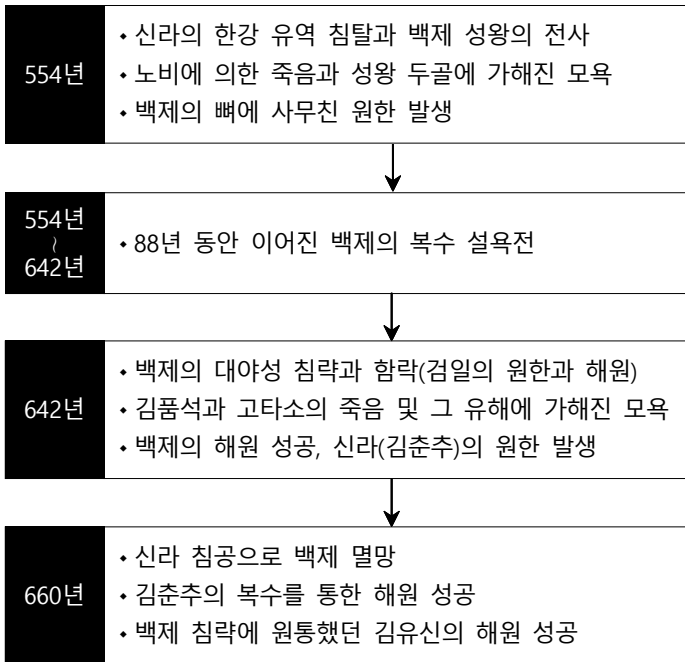
김유신이 595년에 태어났음을 고려하면 그의 나이 17세는 611년 [辛未年]으로서 백제 무왕이 치욕을 당한 성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신라를 계속 침공하던 기간에 속해있었다. 고구려 역시 남쪽 세력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한강 유역을 장악한 신라를 도발하고 있었다. 위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의 이러한 외침으로 인한 고통에 비분강개하였다. 그러면 그에게는 원한 감정이 생겼다고 해야 한다. 김유신은 이를 가슴에 품고 하늘에 기도하고 기연(奇緣)을 만나고자 했다.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머리에 근심이 가득 차서 일부러 이곳으로 와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김유신의 말은 이런 그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가 안겨다 준 원통함을 풀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는 보복을 통한 해원을 추구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결국,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으로써 삼국을 병합한다는 그의 목적은 그가 추구하는 해원의 결과였던 셈이다.

유능한 현장 전투 지휘관이었던 김유신은 해원의 의지가 만드는 강력한 힘을 잘 알고 이것을 군사 전술에도 활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647년에 백제군이 침략했을 때 신라군이 이를 막기 힘들어지자, 김유신은 비령자(丕寧子)를 불러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라고 명령했다. 비령자는 적진에 돌격하여 처절하게 죽고, 연이어 그 아들 거진(擧眞)과 뒤따르던 종 합절(合節)도 적진 한가운데로 달려들어 죽으니, 이를 지켜본 신라군은 울분이 끊어올라 그 원한을 갚고자 하는 마음에 사기를 크게 일으켜 백제군을 격파했다.²⁸⁾ 신라군은 이와 비슷한 전술을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도 구사했으니, 계백의 결사대에 막혀 진군하지 못하던 신라군이 화랑 반굴(盤屈)과 관창(官昌)을 적진에 돌격하여 죽도록 만드는 수법으로 군사들의 복수심을 일으켜 백제군을 섬멸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²⁹⁾

27)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第一」, ‘金庾信, 上’.

28) 『三國史記』 卷第四十七, 「列傳第七」, ‘丕寧子’.

김유신은 사후에조차 원한의 관점에서 조명되는 인물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는 죽은 지[673년] 106년이 지난 779년에 홀연히 회오리바람과 함께 무덤에서 나타나 통곡하면서, 자기의 자손들이 죄 없이 사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항의하고 더 이상 신라를 수호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왕은 이를 전해 듣고 두려워하여 신하를 보내 김유신의 무덤에 사과하게 하고 명복을 빌게 하였다.³⁰⁾ 그러니까 김유신은 일생을, 심지어 사후에도 해원이라는 색채를 두르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1> 백제가 멸망하기까지 조명되는 해원 지점들

29) 『三國史記』 卷第四十七, 「列傳第七」, 「官昌」.

30)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未鄒王竹葉軍」. 이후의 『三國遺事』 해석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를 인용하였음.

정리를 해보자. 원한 풀기인 해원이 백제의 유일한 멸망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균형 잡힌 국제 외교 관계 구축 실패, 왕과 귀족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분열, 잦은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손실과 강력한 적국의 침입 등이 중요한 국가 멸망의 원인이었다. 그에도 불구하고 <도표 1>에서 보듯이 백제가 멸망에 도달하는 여정 동안 원한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해원 의지가 역사를 흘러가도록 만든 강력한 추동력 가운데 하나였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복수의 해원을 백제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Ⅲ. 해원과 고구려 멸망 설화

고구려 멸망은 백제 멸망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외교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있다.³¹⁾ 이 외에도 왕권 약화와 지도층의 분열, 수·당과의 거듭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손실 및 강력한 적국의 침략이 중요한 멸망의 원인이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700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 5세기 무렵에는 동아시아 최대 강국으로 군림하며 방대한 영토를 점유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허무하게 멸망한 역사를 논리적인 이유만으로 또박또박 설명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고구려 멸망을 종교적 설명으로 풀이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그가 채택한 방법은 원한을 가진 존재가 원통함을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세간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시한 사례는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

31) 拜根興, 「당 고종대 한반도 상황변화와 고구려의 대응: 고구려 멸망 원인과 관련하여」, 장원섭 옮김, 『청계사학회』 23 (2021), p.315.

던 추남과 양명의 일화였다.

먼저 점쟁이 추남(楸南)의 해원을 살펴보자. 일연을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유신은) 나이 18세가 되던 임신(壬申: 612)년에 검술을 익혀 국선(國仙)이 되었다. 이때 백석(白石: 고구려 첩자)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낭도의 무리에 여러 해 동안 속해 있었다.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를 치려는 일로써 밤낮으로 깊이 모의하고 있었다. 백석이 그 모의를 알고 김유신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가 공과 함께 은밀히 저들의 나라에 들어가 먼저 정탐을 한 연후에 그 일을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하였다. 김유신이 기뻐하며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났다.

바야흐로 고개 위에서 쉬고 있는데 두 여자가 김유신을 따라왔다. 골화천(骨火川: 경북 영천)에 이르러 유숙하는데 또 한 여자가 홀연히 나타나 이르렀다. 김유신이 세 여자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노라니 세 여자가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였다. 김유신이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마음을 서로 허락하고 즐겁게 담소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여인들이 말하기를 “공이 말씀하신 바는 이미 들어서 잘 알겠사오나, 원컨대 공이 백석을 때어놓고 우리와 함께 수풀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때 사실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니 낭자들이 문득 신으로 변하여 말하였다. “우리들은 나림(奈林)·혈례(穴禮)·골화(骨火) 등 세 곳의 호국신인데, 지금 적국의 사람 백석이 공을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데도, 공은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말리려 이곳에 온 것입니다.” 신들은 말을 마치고 나서 사라졌다. 김유신이 이 말을 듣고 놀라 엎어져 두 번 절하고 나왔다.

김유신은 골화관(骨火館)에 숙박하였을 때 백석에게 말하기를 “지금 다른 나라에 가면서 긴요한 문서를 잊고 왔다. 청컨대 자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오자.” 하였다. 마침내 함께 돌아와 집에 이르자 백석을 붙잡아 결박하고 사실을 물었다.

백석이 말하기를 “저는 본시 고구려 사람으로 우리나라(고구려)의 여러 신하가 ‘신라의 김유신은 바로 우리나라의 점쟁이 추남(楸南)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경계에 물이 거꾸로 흐르

기에 왕이 그에게 이에 대한 점을 치게 하였더니, 추남이 말하기를 ‘대왕의 부인께서 음양의 도를 역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왕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으며 왕비도 몹시 노하여 이것은 필시 요사한 여우의 말이라고 하며 왕께 고하기를 ‘다른 일로써 그를 시험하여 말이 맞지 않으면 증형에 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쥐 한 마리를 함에 담아 두고,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추남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쥐이며, 그 수가 여덟 마리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틀렸다고 하며 죄를 씌워 죽이려 하니, 추남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추남의 목을 베고 쥐의 배를 갈라 그 안을 보니 새끼 일곱 마리가 있어 그제야 그의 말이 적중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대왕께서 추남이 신라 서현공(김유신의 아버지)의 부인 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고, 여러 신하에게 물어보니 모두 다 ‘추남이 맹세를 하고 죽더니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어 여기에 와서 공을 도모케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김유신이 곧 백석을 죽이고 온갖 음식을 갖추어 삼신에게 제사를 지내니 모두 다 몸을 나타내어 흠향하였다.³²⁾

다소 긴 이야기를 간추리자면, 고구려의 국경지방에 물이 거꾸로 흐르는 이상한 일이 생기자, 임금이 유명한 점쟁이 추남에게 점을 쳐 보게 하였다. 추남은 왕비의 행실이 문란했기 때문이라고 아뢰었고, 왕비는 크게 노하여 추남이 과연 점을 제대로 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부터 시험하자고 하였다. 그 방법은 쥐 한 마리를 상자 안에 숨기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점을 쳐서 맞추는 것이었다. 추남은 점을 쳐서 쥐가 여덟 마리 들어있다고 확신했으나, 왕비는 점이 틀렸다고 하여 추남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추남은 반드시 적국의 대장이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다. 그가 죽은 후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쥐의 배를 가르니 새끼가 일곱 마리가 들어있었다. 추남의 점괘대로 쥐는 여덟 마리였다. 추남은 억울하게 죽은 원

32)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金庾信’.

한을 풀기 위해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으로 환생하였고,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복수하였다고 한다.

일연은 수나라 양제의 장수 양명(羊明)의 해원 설화도 알려주고 있다.

수나라 양제가 요동을 침략할 때 양명이라는 비장(裨將)이 있었다. 전세가 불리하여 죽게 되자 맹세하기를 “만드시 총애를 받는 신하[寵臣]가 되어서 저 나라(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씨(蓋氏: 연개소문)가 조정을 전횡하게 되자 개(蓋)를 성으로 하였으니, 곧 양명(羊明)이 이에 부합된다.

또 고려고기(高麗古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수나라 양제가 대업(大業) 8년 임신(壬申: 612년)에 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왔다. 10년 갑술(甲戌: 614년) 10월에 고구려왕(영양왕)이 글을 올려 항복을 청하였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몰래 작은 활을 가슴 속에 감추고 표문을 가져가는 사신을 따라 양제가 탄 배 안에 이르렀다. 양제가 표문을 들고 읽을 때 활을 쏘아 양제의 가슴을 맞혔다. 양제가 군사를 돌이켜 세우려 하다가 좌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하의 주인으로서 작은 나라를 친히 정벌하다가 이기지 못했으니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이때 우상(右相) 양명이 아뢰기를, “신이 죽어 고구려의 대신이 되어서 만드시 그 나라를 멸망시켜 황제의 원수를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죽은 후 양명은 고구려에 태어나서 15세에 총명하고 무용이 뛰어났다. 그때 무양왕이 그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들여 신하로 삼았다. 그는 스스로 성을 개(蓋)라고 하고 이름을 금(金)이라고 하였는데, 지위가 소문(蘇文)에 이르렀으니, 곧 시중(侍中: 재상)의 직이다.³³⁾

간단히 말해서, 수나라 장수 양명(羊明)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여겼고, 그 원한을 풀고자 죽은 후에 고구려의 재상 연개소문으로 태어나서 고구려를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연개소문이 양명의 환생인 증거는 연개소문의 개(蓋)를 파자하면 곧 양(羊)과 명(明)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33)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

일연은 고구려 멸망의 원인으로 연개소문(淵蓋蘇文, 蓋金)을 지적했다. 당나라 침입을 격퇴한 공을 들어 연개소문을 높이 평가한다든가, 임금에게 반역하고 독재정치를 폈다는 점에서 그를 깎아내린다든가, 또는 중국에서 그들을 패배시킨 연개소문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관점 사이에서, 연개소문이 고구려 멸망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확실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권력을 장남 연남생에게 물려주면서 후계자 구도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았던 것이 훗날 그 형제들 사이의 내분으로 이어져 고구려는 내란 상황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추남의 점괘 이야기나 양명의 환생 이야기는 정사(正史)가 아니라 구전 설화다. 따라서 해원으로 인한 국가 멸망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멸망을 추남과 양명의 원한 풀기, 즉 해원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현상은 강대했던 고구려의 허무한 멸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

IV. 해원과 신라·후백제 멸망

1. 해원과 후백제 건국

후백제의 건국과 멸망에도 해원이 조명된다. 먼저 건국 상황부터 살펴보자. 견훤이 892년에 무진주(武珍州: 전라도 광주)를 장악하여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했을 때는 자기를 왕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식읍 2000호에 ‘신라서면도통(新羅西面都統) 지휘(指揮)·병마

(兵馬)·제치(制置: 군무와 지방 정치 담당) 지절도독전무공등주군사(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 행전주자사(行全州刺使) 겸 어사중승(御史中丞) 상주국(上柱國) 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이라고만 했을 뿐이다.³⁴⁾ 점차 세력을 넓혀 완산주(完山州: 전주)에 이르렀을 때, 견훤은 비로소 국가 건설을 선포하며 왕으로 등극했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주의 백성들이 영접하면서 위로하였다. 견훤은 민심을 얻은 것이 기뻐하여 좌우 사람들에게 말했다. “백제가 나라를 연 지 6백여 년에, 당나라 고종은 신라의 요청으로 소정방을 보내어 수군 13만 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고, 신라의 김유신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황산(黃山: 충남 논산)을 거쳐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다. 그러니 내가 이제 어찌 도읍을 정함으로써 예전의 쌓인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予今敢不立都以雪宿憤乎!)” 드디어 스스로 후백제왕이라고 일컫고 관직을 설치했으나, 이때가 당나라 광화(光化) 3년(900년)이요, 신라 효공왕(孝恭王) 4년이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주(州)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삼국의 시초를 찾아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진한과 변한은 그를 뒤따라 일어난 것이다. 이에 백제는 금마산(金馬山: 전북 익산)에서 개국하여 6백여 년이 되었는데, 총장(摠章) 연간에 당 고종이 신라의 요청으로 장군 소정방을 보내어 배에 군사 130,000명을 싣고 바다를 건넜고, 신라 김유신이 흙먼지를 날리며 황산(黃山: 충남 논산)을 지나 사비(泗水: 충남 부여)에 이르러 당병과 합세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宿憤]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후백제왕을 자칭하고 관부를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니 이때는 당(唐) 광화(光化) 3년(900년)이며 신라 효공왕 4년이었다.³⁵⁾

34) 『三國史記』 卷第五四, 「列傳第十」, ‘甄萱’.

35) 『三國史記』 卷第五四, 「列傳第十」, ‘甄萱’.

견훤은 900년에 전주에서 국가 설립을 선포할 때, 240년 전인 660년에 멸망한 백제의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울분[宿憤]을 씻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이 국가를 세워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은 당연하다. 백제 유민들이 그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와는 별개로, 견훤이 후백제 건국의 이유를 해원으로 주장했던 것은 인정될 수 있다.

2. 신라 경순왕의 원한과 못다 한 해원

후백제와 신라의 멸망에는 해원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다만 속 시원하게 성사되는 해원이 아니라 미완성의 해원들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927년 견훤의 신라 서라벌 공격부터다. 급작스러운 견훤의 침입에 방어할 힘이 없었던 신라는 고려에 급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침이 없었던 견훤은 서라벌로 곧장 밀고 들어갔다.

(927년) 가을 9월에 견훤이 고을부(高鬱府: 경북 영천)에서 신라 군사를 습격하였다. 신라 경애왕이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 병사 10,000명을 내어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은 겨울 11월에 서라벌[王京]에 침입하였다. 경애왕은 비빈·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잔치를 열고 노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경애왕과 왕비는 달아나 후궁(後宮)으로 들어가고, 종실 친척·공경대부와 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숨었다. 적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땅을 기면서 중이 되기를 구걸하였으나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견훤은 또 병사들을 풀어서, 공사(公私)의 재물을 거의 다 헐박하여 빼앗고, 궁궐로 들어가 차지하고는 좌우에 명하여 왕을 찾게 하였다. 경애왕은 왕비와 첩 몇 명과 함께 후궁에 있다가 군대 진영으로 잡혀갔는데, 견훤이 꿰박하여 왕을 자살하게 하고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부하들이 왕비와 첩을 간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곧 경애왕의 친척 동생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세우니, 그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다.³⁶⁾

이 사건에서 역사는 경애왕이 추운 겨울 11월에 포석정에서 유상곡수(流觴曲水)하며 방탕하게 놀다가 백제군에게 죽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강돈구는 경애왕이 성지(聖地) 포석정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놀았던 것이 아니라 호국의 팔관회를 열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³⁷⁾ 그러니까 경애왕은 적의 침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과 놀이에 빠져 있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발원의 종교의례를 행하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견훤은 대군을 몰아 신라를 침공하여 포석정에 있던 경애왕을 잡아 죽이고 왕비를 강간했으며, 부하들로 하여금 왕비와 빈첩들을 윤간하게 하고, 신라의 보물을 약탈하여 포로들과 함께 끌고 갔다. 신라 천 년 역사에서, 927년의 겨울에 벌어진 이 사건은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치욕이었다. 견훤으로서는 신라에 멸망 당한 백제의 원한을 갚고자 하는 복수의 행위였을 수도 있으나, 그 방법은 참으로 극악무도했다.

견훤이 서라벌을 떠나 후백제로 돌아간 후, 그와 왕건 사이에는 몇 통의 서신이 오갔는데, 928년 정월 왕건은 견훤에게 답서를 보내면서 견훤을 이렇게 비난했다.

“그대(견훤)는 적고 적은 이익을 보고서는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임금(신라 경애왕)을 베어 죽이고, 궁궐을 불 질렀으며, 대신들을 살육하였고, 선비와 백성을 죽였소. 귀부인은 곧 붙잡아 수레에 같이 태우고, 진귀한 보물은 곧 빼앗아 가득 실어 갔소. 큰 죄악은 결주(桀紂)보다 더하고, 불인함은 제 부모를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보다 심하였소. 나의 원한[僕怨]은 경애왕의 돌아가심[崩天]에 극에 달하였고, 정성은 해를 물러나게 할 정도로 깊어 매가 사냥함을 본받고, 견마(犬馬)의 부지런함을 바치기로 서약했소. … 반드시 지수(洙水)의 군영에서 장이(張耳)가 천 갈래 원한을 씻었듯이, 오강(烏江) 가에서 한왕(漢王)이

36) 『三國史記』 卷第十二, 『新羅本紀第十二』, ‘景哀王’.

37) 강돈구, 「포석정의 종교사적 이해」, 『한국사상사학』 5 (1993), pp.43-66; 노재현·신상섭, 「중국과 한국의 유상곡수(流觴曲水) 유배거(流盃渠) 특성에 관한 연구」, 『휴양및경관연구』 4-2 (2010), pp.8-9; 권영오,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율」,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pp.184-194.

한 번 이겨 공을 이루었듯이, 마침내 전쟁을 종식하고 영원히 천하[寰海]를 맑게 하기를 기약하는 바이오. 하늘이 돕는 바이니, 천명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소?”³⁸⁾

이 답신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려 왕건이 신라 경애왕을 살해한 견훤에게 원한이 극에 달한다고 쓴 대목이다. 그는 견훤의 행위가 결·주의 죄악을 뛰어넘는 잔인한 것이니 극도의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견훤과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장이가 천 갈래 원한을 씻었던 전례를 따르겠다고 강조한다. 이후 왕건은 견훤과 여러 차례 격돌하였다.

경애왕 해원을 위해 복수를 해야 하는 직접적 당사자는 신라 경순왕이었다. 경순왕은 견훤에 의해 왕이 되었으나, 그에게 견훤은 은인(恩人)이 아니라 경애왕의 비참한 죽음과 치욕을 안겨준 원수였다. 하지만 경순왕은 그에게 복수로써 원한을 풀 수가 없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신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순왕에게는 더 큰 원한이 되었다. 931년 2월, 고려 왕건이 서라벌로 경순왕을 찾아왔을 때, 경순왕은 자기의 애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5년(931년) 봄 2월에 고려 태조가 5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경기(京畿: 궁궐 인근)에 이르러 만나 뵈기를 청하였다. 경순왕이 백관과 교외에서 맞아 궁으로 들어와 상대하는데 간곡하게 정성과 예의를 다하였다. 임해전(臨海殿)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무르익자 경순왕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점점 화란(禍亂)에 이르고 있고, 견훤은 의롭지 못한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어떠한 원통함이 이와 같겠습니까?”라고 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다. 좌우에서 목메어 울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태조 왕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³⁹⁾

38) 『三國史記』 卷第五四, 「列傳第十」, ‘甄萱’.

39) 『三國史記』 卷第十二, 「新羅本紀第十二」, 경순왕 5년 2월.

경순왕이 견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원한을 풀지 못한 것은 복수를 할 힘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었다. 경순왕은 복수로써 해원하고자 하나 해원할 길이 없어 해원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이런 와중에 935년 3월, 후백제에서는 정변이 일어난다. 견훤은 맏아들 신검 대신 평소 자신이 총애하던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18년(935년) 봄 3월 견훤의 아들 신검이 그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아우 금강을 죽였다. 처음 견훤에게는 잉첩(媵妾)이 많아 아들이 10여 명 있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도 많아서 견훤이 특히 사랑하여 왕위를 전하고 싶어 하였다. 그의 형 신검과 양검·용검 등이 이를 알고서 근심하고 고민하였다. 이때 양검과 용검은 변방에 나가 있고 신검이 홀로 견훤의 곁에 있었는데, 이찬 능환이 사람을 시켜 양검·용검과 함께 음모하여 신검에게 난을 일으키도록 권하였다.⁴⁰⁾

아들의 반란으로 왕위를 잃은 견훤은 석 달 만에 금산사를 빠져나와 고려 왕건에게 귀순하게 된다.

견훤이 금산사에 있던 지 3개월 만인 (935년) 6월에 막내아들 능예 딸 쇠복, 총애하는 첩 고비 등과 더불어 금성(錦城: 전남 나주)으로 달아나 사람을 보내 왕건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다. 고려 태조가 기뻐하여 장군 금필과 만세 등을 보내 뱃길로 가서 그를 위로하여 맞아오도록 하였다. 견훤이 고려 왕궁에 도착하자 왕건은 두터운 예로써 대접하고, 견훤이 10년 연장자라고 하여 높여서 상보(尙父)로 삼았다.⁴¹⁾

견훤이 고려로 쫓겨온 지 넉 달 뒤인 10월,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

40) 『高麗史』 卷第二, 『世家』, 태조 18년(935년) 3월. 『高麗史』 해석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를 인용하였음.

41) 『三國史記』 卷第五四, 『列傳第十』, ‘甄萱’.

하기로 결심한다. 태자[麻衣太子]와 몇몇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경순왕은 “고립되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아 세력이 온전할 수 없다. 이미 강해질 수 없고 또 약해질 수도 없으니, 죄 없는 백성들이 간장(肝臟)과 뇌수가 땅에 날리는 참혹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과 함께, 935년 11월 고려에 나라를 넘겼다.⁴²⁾

경순왕의 결정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다. 나라에 힘이 없고, 백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포악한 원수 견훤이 실권했고 그 때문에 구심점을 잃은 후백제 내부의 균열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신라는 우호적인 고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양국 사이에 끼어들어 절묘한 외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시간을 벌며 내부의 폐단을 개혁하고 국력을 기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순왕은 천 년이나 되는 국가의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필자는 경순왕에게 어떤 중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신라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안팎에 쌓인 수많은 문제를 개혁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련한 수완이 필수다. 그런데 경순왕의 카리스마와 능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때 들려온 소식이 견훤의 몰락이었다. 기고 만장하던 원수 견훤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위에 쫓겨나 고려로 도망쳐야 했다는 것은, 복수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으로서 곧 해원 목표의 상실을 의미했다. 아마도, 풀지 못한 숙원(宿怨)에 허덕이던 경순왕은 견훤의 말로를 보고 인간사의 허망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천 년 사직을 내리게 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가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신라의 멸망 이면에는 인간 역사의 무상함과 이루지 못하는 해원의 한탄이 숨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42) 『三國史記』卷第十二, 「新羅本紀第十二」, 「敬順王」; 『三國遺事』卷第二, 「紀異第二」, 「金傅大王」.

3. 견훤의 원한과 복수, 후백제의 멸망

견훤은 신검 때문에 생긴 원한을 풀어야 했다. 다소 놀랍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신검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 손으로 없애는 것이었다.

(936년) 여름 6월에 견훤이 아뢰기를, “늙은 신하가 전하에 게 몸을 의탁하였던 까닭은 전하의 존엄한 위력을 빌려 불효한 자식을 베기를 원해서였을 뿐입니다. 옳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신령스러운 군사를 빌려주셔서 그 불충불효한 자식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을 없애 주신다면 신은 비록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고려 태조가 이를 따랐다. …

가을 9월에 태조가 삼군(三軍)을 이끌고 천안에 이르러 군사를 합쳐 일선(一善: 구미 선산)에 나아갔다. 신검이 군사를 동원하여 그를 맞았다. … 백제 장군 효봉, 덕술, 명길 등이 고려의 군세가 대단하고 정비된 것을 바라보고는 갑옷을 버리고 진 앞에 나와 항복하였다. 태조가 그들을 위로하고 백제 장수가 있는 곳을 물으니 효봉 등이 말하기를, “원수(元帥) 신검은 중군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조는 장군 공훤에게 명하여 곧바로 중군을 공격하게 하고, 일제히 진격하여 협공하니 백제군이 패하여 무너졌다. 신검과 두 동생 그리고 장군 부달, 소달, 능환 40여 인이 항복하였다.

태조는 항복을 받고 능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위로하고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능환에게 묻기를, “처음 양검 등과 몰래 모의하여 대왕[견훤]을 가두고 그 아들을 세우자고 한 것은 너의 꾀였다. 신하된 의리로 이와 같음이 옳은가?”라고 하였다. 능환이 머리를 숙이고 말을 하지 못하니 드디어 명하여 그를 베었다. 신검이 분수에 넘치게 왕위를 차지하였던 것은 남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그의 본심이 아니었고 또 귀순하여 죄 줄 것을 빌었으므로 특별히 그 죽을죄를 용서하였다.⁴³⁾

43) 『三國史記』 卷第五四, 「列傳第十」, ‘甄萱’.

해원은 자기의 평생 업적을 무너뜨릴 만큼 무섭다! 이로써 후백제는 936년 9월에 패망하게 된다. 견훤은 복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왕건이 말려서 신검을 죽이지는 못했으니 완전한 복수는 아니었다. 견훤은 못다 한 해원 때문에, 그리고 그 해원이라는 게 실상은 평생 일군 자신의 업적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야 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심에 빠지게 된다. 『삼국유사』는 율화가 치밀어오른 견훤이 등창을 앓게 되어 황산(黃山: 논산의 연산)의 한 사찰에서 며칠 앉지도 못하고, 같은 해인 936년 9월 8일 7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고 전한다.⁴⁴⁾

정리하자면, 후백제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는 해원의 기치를 들면서 세워졌다. 신라는 해원을 성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원한의 무상함을 전하며 천 년 사직을 접었다. 견훤은 신라에 대해 철저한 가해자였으나 아들 신검 때문에 피해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원한을 풀고자 후백제를 침공하였다. 그러한 해원 시도는 후백제를 멸망시키고야 말았다. 불효자 신검은 살았으나 사랑하는 넷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평생 이룩한 대업을 자기 손으로 한 번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마음의 병을 얻은 견훤은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후백제 멸망에는 못다 한 견훤의 해원이 진한 아쉬움으로 떠돌고 있다.

V. 닫는 글

국가의 멸망은 정치·군사·외교·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초적인 감정인 원한과 그 해소 역시 국가 멸망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핀 대로, 백제·고구려·신라·후백제의 멸망이 그 사례들이다.

원통함을 복수로써 해소하는 행위가 국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야

44)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後百濟甄萱」.

기는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이것을 접하는 독자들은 인류 역사에 보편적이었던 탈리오법칙에 기대어 역사 전개에 필연성을 납득받을 수 있다. 역사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원통함을 푸는 해원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주지하듯이 강증산의 사상에서 해원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증산은 상극으로부터 비롯된 원한이 쌓이고 맺혀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최고신의 지위와 권능으로써 만물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즉 해원시키려고 나섰다.⁴⁵⁾ 그리하여 그는 신명과 인간 심지어 동물의 억울한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거나, 그들의 이루지 못한 소망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 역사에서 보편적이었던 복수나 저주를 탑재한 상극의 해원이 아니라 관용·화해·베움을 지향하는 상생의 해원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⁴⁶⁾ 구체적으로 그것은 원수에게 품었던 원한을 스스로 승화하여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는 것,⁴⁷⁾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되 만약 원한을 사게 되어 책(慼: 상대가 나에게 품는 원한)을 만들었다면 상대를 우대하여 그 책을 품으로써 ‘무책(無慼)’의 상태를 만들 것,⁴⁸⁾ 과도한 허욕으로써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스스로 원망을 쌓는 병에 걸리지 말고 분수와 기국(器局)에 맞는 삶을 살 것⁴⁹⁾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증산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교단은 100여 개가 넘는다.⁵⁰⁾ 이 교단 대다수는 증산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해원’은 ‘해원’대로, ‘상생’은 ‘상생’대로 구분하여 두었다. 그러나 해원은 원래 폭력을 지향하는 개념이므로 증산의 사상을 ‘해원’이라고만 정리하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적어도 표현만으로는 증산이 탈리오법칙이라는 인류 보편

45) 『전경』, 공사 1장 3절.

46) 차선근, 「강증산의 대외인식」, 『동ASIA종교문화연구』 2 (2010), pp.132-135.

47) 『전경』, 교법 1장 56절, 교법 3장 15절.

48) 같은 책, 교법 1장 9절, 교법 2장 44절.

49) 같은 책, 교법 2장 54절, 교법 3장 24절.

50)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익산: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997), p.152.

의 해원을 추구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증산의 사상을 ‘교리화’할 때 해원으로 표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산의 해원은 상극이 아닌 상생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원에 반드시 상생을 붙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해원과 상생을 결합한 ‘해원상생(解冤相生)’이라야 증산의 사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용어가 될 수 있다. 현재 대순진리회는 ‘해원’과 ‘상생’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결합하여 ‘해원상생’을 종교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교단이다. 해원의 본질이 상대(또는 자신)를 향한 폭력이므로, 상극이 아닌 상생으로써 해원을 하라고 한 것이 증산의 참뜻이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해원상생이라는 종교용어를 정해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 종교용어는 증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도주 조정산이 만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이런 용어가 증산계 교단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다.⁵¹⁾

당연히 증산계 교단에서 강조하는 해원은 상생의 해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증산계 교단에서는 ‘해원상생’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해원’과 ‘상생’을 구분해서 표기해도, 그 해원이 상생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해원은 원래 저주와 복수를 수반하는 상극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증산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해원’은 두렵고 무서운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증산계 교단들이 자기들의 교의(敎義)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는 ‘해원’ 대신에, 상생을 지향하는 혹은 상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덧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순진리회가 도주의 뜻에 따라 해원이 아닌 해원상생을 종지로 설정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1)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pp.72-77.

【참고문헌】

『전경』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강돈구, 「포석정의 종교사적 이해」, 『한국사상사학』 5, 1993.

권영오,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웅립」,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김창석,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大耶城)」, 『신라문화』 34, 2009.

_____, 「한국 고대의 복수관(復讐觀)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8, 2013.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익산: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997.

노재현·신상섭, 「중국과 한국의 유상곡수(流觴曲水) 유배거(流盃渠) 특성에 관한 연구」, 『휴양및경관연구』 4-2, 2010.

신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이희진, 「백제-신라 전쟁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백제멸망 원인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차선근, 「강증산의 대외인식」, 『동ASIA종교문화연구』 2, 2010.

_____,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_____, 「한국 종교의 해원상상 연구: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1.

_____, 「강증산의 해원상상과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지향점」, 『대순종학』 3, 2022.

拜根興, 「당 고종대 한반도 상황변화와 고구려의 대응: 고구려 멸망 원인과 관련하여」, 장원섭 옮김, 『청계사학회』 23, 2021.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동북아역스넷》 <http://contents.nahf.or.kr>

■ Abstract

**Illuminating the Downfall of a Nation through
the Lens of Grievance Resolution: Focusing on
the Downfall of Baekje, Goguryeo, Silla, and
Later Baekje**

Cha Seon-keun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downfall of Baekje, Goguryeo, Silla, and Later Baekje through the lens of grievance resolution. It asserts that while the factors leading to a nation's demise often involve elements like politics, military, diplomacy, and economics, revenge, as a primal human emotion, can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The narratives depicting vengeance as the catalyst for the destruction of nations are compelling. The reader is persuaded of history's unfolding inevitability, guided by the universal Talion law that has persisted throughout human history. The use of violence to address grievances is portrayed as a justified expression of a natural human need. Essenti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violence against others (or oneself) is central to resolving grievances, as demonstrated by the historical record of national destruction.

It is disconcerting, however, that many modern Korean religions

stemming from Jeungsan incorporate “grievance resolution” as a fundamental tenet. While their interpretation of grievance resolution may not involve violent revenge, the original concept implies a terrifying act with violent undertones. Therefore, if these denominations do not perceive their grievance resolution as violent, they should use an alternative term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Currently, Daesoon Jinrihoe is one of the few organizations taking this approach. Since its establishment, the organization has coined the term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instead of simply “Resolution of Grievances” within its religious doctrine. This deliberate choice underscores that the grievance resolution advocated by Daesoon Jinrihoe is non-violent and seeks mutual benefit. Given that the essence of grievance resolution is often associated with violence, Daesoon Jinrihoe’s distinct terminology sets it apart from other denominations.

Keywords: Collapse of A State, Talion Law, Resolution of Grievances, Reveng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